

유재석, SBS 연예대상 "20개 도전...끝까지 달리겠다"

등록 2022.12.18 01:46:49 | 수정 2022.12.18 01:52:21



유재석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유재석이 열아홉 번째 연예대상을 거머쥐었다.

유재석은 18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 열린 '2022 SBS 연예대상'에서 '런닝맨'으로 대상을 받았다. SBS에서만 일곱 번째 대상 수상이며, KBS와 MBC를 포함하면 열아홉 번째다. 개그맨 신동엽을 비롯해 지석진, 가수 김종국, 탁재훈, 이상민 등과 경쟁해 영예를 안았다.

유재석은 "받으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없었다.) 런닝맨 팀이 함께 받는 상이 아닐까 싶다. 이 영광을 석진 형에게 주고 싶다"며 "형 진짜 미안하다. 이름 호명됐을 때 '죄송하다'고 했더니 형이 내 귀에 욱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는 걸 안다. 형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해 웃음을 졌다.

"집에서도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 안하고 자고 있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부인) 나경은씨, (아들) 지호가 크다 보니 내가 아끼는 옷이 자꾸 사라진다. 나한테 이야기 하고 입어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지호, 나은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어른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유재석은 2010년부터 런닝맨을 이끌고 있다. 멤버 지석진을 포함해 김종국, 개그맨 양세찬, 래퍼 하하, 배우 송지효, 전소민과 제작진, 게스트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런닝맨은 새해부터 일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20분 시청자를 찾을 예정이다.

"런닝맨 멤버들과 13년을 향해 가고 있다. 오랜 시간 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한해가 아닐까 싶다. 버라이어티를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간대를 옮겨서 경쟁 프로그램들과 함께 풍성한 재미를 주고, 격전지가 돼 예능이 활발해져 최고의 경쟁자로 거듭나겠다. (장)도연씨와 인터뷰에서 대상 20개를 (채울 마음이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이제 19개다. 하나 더, 한번 마지막 끝까지 달려보겠다."

<2022 SBS 연예대상 수상자(작)>

- ▲대상=유재석(런닝맨)
- ▲프로듀서상=탁재훈(미운 우리 새끼·신발벗고 돌싱포맨)
- ▲올해의 프로그램상=미우새, 골 때리는 그녀들, 런닝맨
- ▲최우수상=이현이(골때녀·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김준호(미우새·돌싱포맨)
- ▲우수상=채리나(골때녀), 허경환(미우새)
- ▲올해의 커플상=유재석, 김종국(런닝맨)
- ▲올해의 팀워크상=동상이몽2
- ▲베스트 캐릭터상=이경규(편먹고 공치리)
- ▲에코브리티상=김병만(공생의 법칙)
- ▲올해의 리더상=골때녀 감독(하석주 김병지 김태영 최진철 최성용 이을용 현영민 이영표 오범석 조재진 백지훈)
- ▲명예사원상=이상민(미우새·돌싱포맨)
- ▲소셜스타상=임창정·서하얀(동상이몽2), 유현주(편먹고 공치리)
- ▲인기상=골때녀3 주장단, 배성재(골때녀)
- ▲신스틸러상=임원희(미우새·돌싱포맨), 정혜인(골때녀)
- ▲2022 SBS의 아들·딸상=김준호, 이현이
- ▲올해의 티키타카상=경서, 서기(골때녀)
- ▲방송작가상=강승희(돌싱포맨), 서인희(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조혜정(배성재의 텐)
- ▲라디오 DJ상=웬디(웬디의 영스트리트), 윤수연(윤수연의 천태만상)
- ▲신인상=윤태진, 하석주(골때녀)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